

『더블린 사람들』의 이어성: 내 안의 타자

김 철 수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의 주제를 “마비”로 설정하고(Joyce, 1975, 83) 그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중사의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꼼꼼한 비속성의 문체’를 사용했다. 이러한 문체적 특성은 여러 비평가들에 의해 “마비의 수사학”(Attrodge & Ferrer, 34) 혹은 “부재의 수사학”(Herring, 3)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에 나타난 마비나 부재의 양상들은, 다른 한 편으로,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의 탈출을 향한 의지나 행위들과 부단한 대립과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조이스의 충실한 문체에 의해서 세세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품의 서사적 균형은 마비의 순환 고리 속에서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본인들이 채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내 안의 타자’ 즉 억압받고 있는 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억압하는 타자’를 깨닫게 하는 조이스의 대화적 서사 기법에 의해서 밀도있게 유지되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아일랜드인들은, 제국주의가 부과하는 식민주의와 ‘제자식을 잡아 먹는 암돼지’와 같은 아일랜드와 그 수도 안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마비로 점철된 전체주의적 문화구조 속에서 이중적 타자의 지위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제한된 삶의 영역과 타자로서의 위치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억압과 희생이라는 순환구조에 자신을 내맡기며 포기하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¹⁾ 그러나 가장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더블린의 ‘마비’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그러한 마비의 원초적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예상할 수 있게 하는 저항적 의도가 숨어 있으며, 그것은 곧 더블린의 마비와 그 근원에 대한 탈식민적 저항의 출발점으로서 해석될 수 있게 된다.

일차적으로 조이스의 문체는 아일랜드의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읽으면서 조롱하는 인물들이 곧 자기 자신이며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 뒤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당연시해왔던 산업화, 근대화 그리고 식민주의의 억압과 그 속에서 억압받아 마땅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던 ‘타자’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는 이러한 탈식민적 페이소스 이상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식민지 타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을 넘어선 새로운 화해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함으로써 그 작품의 미래적 비전을 드러내준다.

이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은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의 이어성(heteroglossia 異語性)의 원리에 비추어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현실화된다.²⁾ ‘소설 속의 담론’이라는 논문에서 바흐친은 일상 언어를 통해 예술적으로 표현된 문학작품에 대한 이어적 탐험은 곧 단일 화자에게 속해 있으면서도 실제 그 안에 두 가지의 언어와 세계관을 혼합시키고 있는 “혼성구문”으로의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Bakhtin 1981, 304-5).

-
- 1) 여기서 말하는 타자 혹은 ‘이중 타자’의 개념은 제국주의 영국과 전체성을 추구하는 한 국가로서의 아일랜드를 주체로 설정했을 때 그러한 체제 하에서 이중적인 억압의 틀에 묶여 있게 되는 아일랜드인 혹은 더블린 사람들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예측의 상태를 염두에 둔 것이다.
 - 2) 미하일 바흐친의 대화주의 이론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의 ‘이어성’ 혹은 ‘헤테로글로시아(Heteroglossia)’는 ‘언어적 다양성’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가지 다른 맥락에서 각각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에 의존하는 원리로서 바흐친 자신에 의해서는 근대 유럽과 영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문체의 풍자적 성격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다. Bakhtin 1981, 301-331 참조.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잘 닦여진 거울’이 일차적으로 의도했던 것이 ‘타자’를 자신의 거울로 삼아 그에게 비친 나의 모습, 즉 억압받는 타자로서의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타자의 모습을 이어성의 원리에 비추어 해석했을 때 그 안에서는 또 다른 ‘내 안의 타자’가 발견된다. 여기서 발견되는 ‘내 안의 타자’는 ‘억압받는 타자’로 인식되어 왔던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억압하는 타자’인 것이다. 즉 정치, 경제, 종교 혹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적 억압을 받아온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작품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피억압성을 깨닫게 되는 다양한 에피퍼니의 순간을 맞게 되는데, 그러한 인식의 순간들은 다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스며 있던 ‘타자를 억압해 온 타자’를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이처럼 조이스의 문체 속에서 나타나는 ‘억압받는 타자’와 그 안에 존재하는 ‘억압하는 타자’의 대화성은 더블린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마비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주적 보편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윤리의 출현을 예견하게 한다.

II

『더블린 사람들』의 유년기의 단편들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의 더블린 사람들이 전체주의에 의해 희생되어 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미리 정해진 체계 속으로 동화되어 간다. 「자매들」의 화자는 “마비”라는 단어와 교리 문답서의 “성직매매”라는 말과 비교하며 자신이 종교적 체계 속에 순응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그 교리문답서는 어린아이가 신이나 국가와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도 전에 신앙과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소년은 앓고 있는 신부가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자신이 배운 교회의 의식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확인한다.

만일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캄캄한 커튼에 촛불이 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두 자루의 양초를 시체 머리맡에 세워두게 되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D, 9)³⁾

3) 이후 『더블린 사람들』의 페이지 참조는 인용문 뒤에 D로 표시한 뒤, 페이지만 밝힘.

이와 같은 신부의 교육은 소년에게 매우 과중한, 그러나 피하기 어려운 억압이었다. 그래서 그 소년은 자신이 신부가 죽었음에도 “슬픈 분위기에 젖지 않고 오히려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음”(D, 12)을 발견하고 매우 당혹해 한다. 이러한 해방감은 스티븐 데덜러스(Stephen Dedalus)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에서 탈출하고자 했던 세 개의 그물 중에 하나인 종교적 부담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한다. “자매들(“The Sisters”)”에 나타난 화자 소년의 자유, 즉 교회와 사제의 특별한 관심으로부터의 탈출은 인간 행위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지금까지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 주제로 알려져 온 마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 텍스트에서 주체적 행위의 가능성, 즉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려 하는 인적, 제도적 억압체에 대항하여 탈출할 수 있는 주체적 가능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등장인물들은 그러한 마비상황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고 때로는 그것을 즐기기도 한다.

화자 소년은 신부와 교제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미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마비의 증상을 느끼고 있었다. 꿈 속에서 소년은 그 신부의 형상이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고해를 하기 시작했을 때, “왜 그 신부가 끊임없이 웃고 있으며 그 입술이 침으로 젖어 있는가”를 의아해 했으며, “그 형상이 마비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성직매매의 죄를 용서해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웃고 있는 것”(D, 11)을 느꼈다. 여기서 플린 신부의 죄를 용서해주면서 희미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형상은 그동안 신부의 교리 교육에 의해 억압받아오던 타자가 아니라, 성배를 깨뜨리는 데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동과 함께, 오히려 신부에게 억압의 요소를 제공한 ‘억압하는 타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인 것이다.

「자매들」의 뒤를 이어 나오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 「뜻밖의 만남」(*An Encounter*)에서 화자인 소년은 학교라는 교육제도의 희생자로서, 자신의 욕망을 지배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벗어나 모험을 하고 싶어한다. 일탈을 시도하는 소년들의 집단과 연합하여, 이 소년은 교회와 국가 그리고 학교의 담론을 버리고 야생의 서부 생활을 꿈꾼다. 광활한 서부의 문학작품 속에 나오는 모험은 그의 본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지만, 최소한 그것들은 소년에게 “탈출의 문”(D, 20)을 열어주었다. 예수회 학교가 교사와 사제의 권위를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소년에게 있어서 탈출의 모험은 전망이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교회와 국가의 담론의 근원적인 권력을 침해하게 될 모든 대체 담론을 무시하는

버틀러 신부의 목소리의 단성성은 그가 야생의 서부에 관련된 담론의 증거를 확보했을 때 극에 달한다. 가톨릭계 소년들을 그들의 공립학교 적수들과 경쟁시키면서, 버틀러 신부는 그의 비난 속에서 통일된 전체주의를 형성하는 종교와 계급, 국적 그리고 정치의 충위를 드러낸다. 신부의 꾸지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야생의 감수성을 갈구하기 시작하는 소년은 “진짜 모험은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가 없고 그들은 오히려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D, 21)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모험 행위는 근대사회와 교회, 그리고 국가가 공포하여 대안적 정체성을 거부하는 나라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탈출을 하기로 결정한 날 화자 소년은 모이기로 약속한 장소에 가장 먼저 나와 있었으며, 인디언 놀이를 통해서 자유분방함을 보였던 딜론(Dillon)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다. 리피(Liffey) 강을 건너서 강 저편을 바라보던 소년은 큰 배에서 짐을 부리는 것을 보는데, 거기서 그는 외국 선원들의 눈동자를 관찰한다. 녹색의 눈동자는 『초상』에 나오는 스티븐의 어린 시절에 그가 불렀던 “녹색의 장미”에 대한 노래를 생각나게 한다. 그 작품에서 녹색은 “아직 창조되지 않은 민족의 양심”과도 같은 상상 속의 색깔이지만, 이 작품 속의 녹색은 신비감의 허와 실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서술자는 녹색의 눈동자를 가진 외국 선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D, 23)을 바라보는 소년의 눈을 통해서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 녹색의 눈을 가진 피짜 노인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화자 소년은 「자매들」에서 신부의 마비 증상을 알아차렸던 소년처럼 이 노인의 “커다랗게 사이가 빈 누런 이빨”(D, 25)을 감지한다. 공허한 노인의 질문에 거짓으로 응답하곤 하던 소년은 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친구 마호니(Mahony)에게 서로 다른 이름을 불러 주자고 제안함으로써 자신들의 타자화를 시도한다. 소년은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해오던 머피(D, 28), 즉 마호니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며 이것은 자신을 타자화함으로써 생겨나는 객관적 자기 관찰의 결과이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교육의 단성성으로부터 “무질서”라는 이름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자신들의 세대를 억압하는 기성세대에게 거짓 이름으로 맞대응하던 소년은 스스로를 제도적 교육기관 속의 억압받는 타자로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 단편의 말미에 나타난 소년은 억압받던 자신 속에서 타자를 억압하는 자아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마치 구원을 가져다주듯 달려온”(D, 28) 머피(Murphy)를 자신의 존재를 위한 상보적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나름대로

의 정신적 성숙을 예견하게 한다.

「애러비」(“Araby”)에 나오는 소년도 역시 타락과 마비의 중심으로 보이는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곰팡이 냄새와 누렇게 퇴색된 책들”이 흩어져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소년은 자신의 “모든 어리석은 피를 불러모으는 소환장파도 같은”(D, 30) 망간이라는 친구의 누이에 대한 성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성적 욕망이라는 그의 대체 담론은 로맨스와는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식민세력으로부터 다가오는 기세등등한 제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욕망이야말로 불공평한 세력분배를 유지하는 식민주의의 전체성을 균열시키는 대화적 전략으로 작용한다. “은팔찌를 계속 돌리며 자신이 다니는 수녀학교에서 있을 피정 때문에 애러비 시장에 함께 갈 수 없다”(D, 32)고 말하는 망간의 누이는 종교라는 또 하나의 식민세력에 의해서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 있는 아일랜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 소녀에게 애러비 시장에서 선물을 사다주기로 약속한 소년은 토요일 밤에 술 취한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와 필요한 돈을 주기를 기다린다. 식민세력과 같은 교회 세력의 편재성은 귀가가 늦어지는 아저씨를 애타게 기다리는 소년에게 “시장에 가는 일을 이번 주일 이후로 미루어야 할 것”(D, 33)이라고 타이르는 숙모의 충고 속에도 스며 있다. 약속을 잊어버렸던 아저씨가 돌아와서 동전을 쥐어주자 소년은, 비록 늦기는 했지만, 결국 시장에 도착한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홀의 대부분을 가득 메운 어둠”(D, 34) 뿐이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억압적인 요소들이 어린 소년을 무기력한 노예처럼 만들고 있다. 학교의 체벌, 안식일에 개인의 회생을 요구하는 교회의 규율, 그리고 상인의 “영국식 악센트”(D, 35)로 상징되는 식민지적 조건 등이 자신의 의식, 즉 자신의 주체성을 결정짓는 근대 사회의 층위들을 소년과 독자들에게 드러내주는 에피페니로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단절의 순간을 통해서 소년의 의식은 양분되고 그는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어둠 속을 노려보면서 자신이 “허영에 의해 내몰리고 조롱받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눈이 “고뇌와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D, 35)을 느낀 소년은 자신의 조국과 자신을 식민화시킨 여러 외부적 상황들과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게 되었으며 이러한 대화화의 과정은 더블린의 마비 속에 숨겨진 이어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블린 사람들』의 청년기의 네 소설은 등장인물들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욕망의 형식으로 그들의 저항의 의지를 입증하고 있다. 그 욕망

은 곧 권위적인 세력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인물들은 그러한 제도적 환경이 자신들에게 부여하는 정체성과 운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 인물들이 추구하는 탈출의 가능성도 역시 ‘억압당하는 타자’로서의 내 안에 숨어 있는 ‘억압하는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이블린」(“Evelyn”)의 주인공은 아무리 털어내도 털어지지 않는 먼지와 같은 마비의 중심에 살고 있다. 이것은 「자매들」에서 신부의 코담배 얼룩을 털어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고 마는 어린 소년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녀가 창가에 앉아 있을 때 저녁은 거리로 “쳐들어오고,”(D, 36) “아일랜드 풍이 아닌 집을 지은 벨파스트 출신의 남성”에 의해서 자신들의 놀이터를 빼앗기고,”(D, 36) 그리고 “근원을 알지 못하는 먼지”(D, 37)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녀가 버는 돈을 모두 가져가고(D, 39), 밖에서는 이름과 그 성격이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프랭크라는 남자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녀로 하여금 이 땅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한다. 그러나 후에 그녀는 “죽은 어머니와의 약속에 대한 기억”(D, 40)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상상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빈센트 첵(Vincent Cheng)이 설명한대로 그녀는 스스로 “여성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최악의 원형적인 두려움, 즉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락방 속의 미친 여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자신의 어머니와 똑같은 운명을 다시 새겨 넣어야 할 상황”(Cheng, 103)에 직면해 있다. 그녀는 또한 얼 잉거솔(Earl Ingersoll)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탈출의 기회를 자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전념하고 있는 또 다른 상처와 상실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Ingersoll, 63). 이처럼 수많은 외부의 힘들이 그녀로 하여금 미지의 세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그냥 햄릿처럼 마비의 시궁창에 빠지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든다(Cheng, 102-3).

결국 이블린이 겪는 마비는 아일랜드의 식민지적 상황, 즉 놀이터를 빼앗기게 된 상황과 낭만적인 젊은이로서의 자신의 삶을 왜곡시키는 과거에 사로잡힌 여성의 기억으로부터 온 것이다. 따라서 더블린의 마비 상황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살고 있는 한 젊은 여자를 묘사한 「이블린」은 낭만적인 꿈에 사로잡힌 소녀의 의식을 억압하는 ‘역사의 악몽’인 셈이다.

「경주가 끝난 뒤」(“After the Race”)의 지미 도일(Jimmy Doyle)은 성공한 푸

쫓간 집 아들로써, 더블린의 개신교 대학인 트리니티 컬리지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다. 고든 베네트 컵 경주가 있던 날에 그는 식민 본국인 영국과 대륙 출신의 친구들과 함께 지냄으로써 소위 “기꺼이 억압받는”(D, 42) 더블린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유리시키려 한다. 지미는 더블린으로부터 탈출하여 막대한 부와 지위를 소유한 대륙의 친구들과 함께 돌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막대한 돈을 그들과의 노름에서 잃게 된다. 이것은 곧 식민지 사람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간에 식민자와 어울리고자 하는 피식민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의 상징이다. 자신의 아버지와 고용주 그리고 문화적 성차별 때문에 고통받는 이블린과는 달리 지미는 부와 남성성 그리고 개신교와 영국인들로부터 이득을 얻는다.

지미가 영국에서 공부함으로써 유지하고자 했던 더블린과의 거리감이 곧 그와 아일랜드적 정체성과의 거리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대륙에서 온 친구들에게 독일의 이름은 ‘아일랜드의 종족’을 나타낼 뿐이며, 그리고 이러한 종족적 정체성은 그를, 그의 돈과 교육 그리고 친구들과 상관없이, 억압받는 타자와 동일시한다(Culleton 18). 한 사람의 타자로서 “지미는 그 게임이 루스(Ruth)와 세귄(Seguoin) 사이의 승부라는 것”(D, 48)을 이해했다. “그 게임”은 사실상 영국과 프랑스라는 두 개의 강대국에게 직면한 문제다. 지미가 자신이 지고 돈을 잃게 될 경기였지만 주저없이 “너무 재미있다”(D, 48)라고 외쳤을 때 그는 이미 희생자로서의 자신을 인정한 셈이다. 영국인과 프랑스인 친구들에게 막대한 돈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미는 단순히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그들과의 도박에서 기꺼이 타자의 입장에 서준다. 헝가리인이 알려주는 “새벽시간”(D, 48)은 지미로 하여금 아일랜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한다. 여기서 일차적으로 회복되는 정체성은 자신의 자본을 모두 제국주의에게 바쳐가면서 그들과 동일시되고자 했지만 결국은 다시 억압받는 타자로 돌아온 자신의 모습이며, “금전가치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의 일시적인 무분별함을 후회하게 되는”(Peake, 24)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륙 국가 사이에서 마비된 채 억압받는 타자가 아닌, 그러한 억압자들과 함께 하며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려고 노력해왔던 자기 안의 ‘타자,’ 즉 자신과 민족과 그 민족의 정체성을 억압해왔던 ‘억압하는 타자’였던 것이다.

「두 건달들」(“Two Gallants”)의 중심 인물인 레너헌(Lenchan)과 코얼리(Corley)

도 더블린의 타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두 사람은 “도시의 주변”(D, 51)에서 서성거리며 머무르고 있는 실직자들이다. 코얼리가 우연히 만난 하녀에게 거짓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돈을 뜯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레너헌은 사람들을 피하며 도시의 주변을 배회한다. 이블린의 “힘든 삶”(D, 38)과 마찬가지로 레너헌의 “지갑과 영혼의 가난”(D, 57)은 그를 탈진시킨다. 그러나 오는 11월이면 서른 하나가 되는 레너헌은 자신의 나이와 걸맞은 알맞은 환경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청년이며, “순박한 처녀를 만나면 어느 아늑한 구석에서 자리를 잡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D, 58)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마비로부터의 탈출을 어렵게 꿈꾸고 있다. 근대 사회의 주변인으로서 그리고 식민지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억압받는 타자성을 인식하지 못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배회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배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회의와 그로부터의 탈출의 상념은 결국 청년기 인물들의 저항의 한 방식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탈출의 가능성은 코얼리가 빼앗아 온 금화 한 닢 속에 숨어 있는 ‘억압하는 타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다.

청년기의 마지막 작품인 「하숙집」(“The Boarding House”)은 자연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으로서(Bowen & Carens 76), 환경적 요인에 이끌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공의 마비적 현실이 자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 밥 도란(Bob Doran)을 꿈쩍 못하게 하는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 무우니 부인(Mrs Mooney)은 “자기 딸들을 시집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엄마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D, 65) 도란과 딸 폴리(Polly)의 밀회를 묵인한다. 무우니 부인은 이러한 스캔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도란의 직업은 위태롭게 되고 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결혼의 형태로 자신이 요구하는 배상의 요구가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도란은 이러한 염려로 인해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D, 65).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을 희생시키는 계략에 자신도 모르게 공포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의 이블린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함정의 상황으로부터 애써 빠져나오기를 거부”(Henke, 28)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딸을 자신에게 접근시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발생하게 한 무우니 부인의 계략에 대하여 도란 자신은 오히려 더 인간적인 해결

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무우니 부인의 계략에 끌려 억지 결혼을 하게 되면 단순한 물질적 상실의 차원을 넘어서 그의 자유와 자신에 대한 세상의 모든 평판을 다 잃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본능에 이끌려 사는 더블린 사람들과는 달리 도란은, 한편으로 자신이 본능에 의해 저지른 일이 그 동안 자신이 공들여 쌓아놓은 탑을 무너뜨리게 되거나 앓을까 우려하면서도, 그러한 상태를 피하게끔 하는 본능의 요구를 다시 거부한다. 그래서 “도망가라는 본능의 경고”(D, 67)도 무시한 채 자신의 죄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결심한다. 무우니 부인의 계략이나 폴리의 순진한 천박함이 그를 옴아매고 주변의 도덕관에 대한 강박관념이 그를 죄어두고 있었지만 수많은 고민 끝에 계단을 내려가는 도란의 모습은 이유야 어찌됐든 한 사람의 피억압자의 신분 속에 감춰져 있었던 근대 시민사회의 남성으로서, 사회적 강자 혹은 억압자 중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블린의 마비에 대한 이어적 탐색은 청년기에 이어서 성인기의 이야기 속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성인기에서는 성숙이라는 말이 식민지 상황에 대한 적응을 함의하게 된다. 성인기의 인물들은 아일랜드의 근대 사회를 뒤덮고 있는 식민 세력에 대한 저항의 능력이 소멸되었음을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성인기의 이야기들 속에는 근대 사회의 흐름과 식민세력에 적응한 사람들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다양한 함의들과 함께 드러나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물리적 가뭄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부터 그 제목을 원용한(Tindall, 26) 「작은 구름」(“A Little Cloud”)에서는 문학적 성공을 꿈꾸는 리틀 찬들러(Little Chandler)가 런던으로 건너가 신문기자로 성공한 그의 친구 갤러허(Gallaher)를 만나 자신의 무의미한 삶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된다. 그리고 자신도 성공을 위해서는 더블린을 떠났어야 했다고 생각한다(D, 73). 그러나 그의 깨달음은 더블린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구체적 욕망으로 승화되지 못한다. 오히려 리틀 찬들러는 “정열과 욕욕으로 가득 찬 동양 여인의 눈동자”(D, 83)를 구원의 상징처럼 떠올린다.

자신의 창의력을 의심하면서, 아마도 갤러허가 자신의 시 중에 하나를 “런던의 신문에 발표해줄 수 있을 것”(D, 73)이라고 상상하는 찬들러의 태도는 “경주가 끝난 후”의 지미처럼 식민통치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식민지 백성의 근성을 보여주고 있다. 찬들러는 “자신의 시집이 영국의 비평

계로부터 받게 될 평론의 내용을 상상”(D, 74)하면서 영국식 규칙에 접근하고, 친구인 갤러허의 눈에 “일요일 아침마다 설교를 하던” 변함없는 모습을 지닌 “경건한 친구”(D, 76)로서 도덕성의 옹호자인 교회의 가치관에 여전히 순응하고 있는 인물로 드러난다. 그리하여 그는 아일랜드 이외의 대도시들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한다. 결국 제국주의 영국과 가톨릭 교회의 감수성은 채널러가 자신의 타자성을 보지 못하고, 또한 더블린을 “사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도시”(D, 73)로 만드는 제국주의와 그 문화적 세력의 연결 관계를 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깊이 뿌리박혀 있다. 그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채널러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사회의 구조 속에 감금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탈출하여 “갤러허처럼 용감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을지 혹은 런던에 갈 수 있을지”(D, 83)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면서 런던으로 도망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는 바이런(Byron)의 시집을 펼쳐서 읽으며 비상의 꿈을 꾸어보지만, 곧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그 환상은 깨어지고 만다. 이처럼 도피의 꿈에 빠져 있는 그에게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유약한 식민지 백성의 타자성, 즉 식민주의의 제단에 바쳐진 희생양이며, “사랑하는 지저분한 더블린”(D, 75)의 무력한 시민이며 그리고 그의 “작은 집”(D, 83)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에게 통렬한 가책의 눈물과 함께 현실적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이피퍼니로 작용한다. 마치 커다란 비를 불러오게 될 작은 한 조각의 구름처럼 이 가냘픈 아이의 울음소리는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억압하는 타자’에 대한 채널러의 자각과 더 나아가서는 더블린 사람들의 자각을 불러 일으키게 될 출발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배들』(“Counterparts”)에서는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패링턴의 거칠고 무책임한 성격이 ‘작은 구름’의 채널러가 갖고 있는 다소 소심한 성격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좋지 못한 근무 태도로 인하여 사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공개적인 힘사랑에서 영국인 웨더스(Weathers)에게 두 번이나 지고, 또 “런던 악센트”(D, 95)를 가진 여자에게 면박을 당하고 나서 패링턴(Farrington)은 “집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하고,”(D, 97)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불을 꺼뜨렸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을 심하게 매질한다. 개인적, 사회적 단계에서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없는 채널러나 패링턴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사회의 구조를 바

라보면서 자신의 타자성을 인식하고 의식적인 저항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피억압자 특유의 “모멸감”(D, 90)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노라고 때리지 말라고 애원한다(D, 98). 매를 맞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기도를 하겠다고 절규하는 아이의 목소리는 아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아버지의 마비 상태를 통찰하고 있는 더블린의 차세대 주인공이다. 이러한 어린 주인공들은 작가에 의해서 미쳐 자신의 마비 상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인 주인공들을 각성시키고 읽는 이로 하여금 더블린의 새로운 도덕사를 보게 하는 에피퍼니로 작용한다.

「진흙」(“Clay”)에서의 마리아(Maria)는 “평화의 사자”로 인정될 만큼 심성이 곱고 성실한 처녀이다. 그러나 그녀는 만성절 전야에 친척들에게 줄 케이크를 샀다가 잊어버리거나 운수를 점치는 게임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진흙이나, 수녀 생활을 의미하는 기도서를 잡고 또 자신이 부른 노래 중에서 구혼의 내용을 가진 2절을 잊어버리고 1절만 반복함으로써 마비된 삶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고 순환하는 전형적인 더블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교도를 위해서 일하고 영국인 남자의 호의에 긴장한 나머지 전차에서 선물을 잊고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한 사람의 가련한 여인이 아닌 가련한 여인의 대표(the poor lady)로서 아일랜드를 상징한다(Tindall, 21-2). 이와 같은 마리아의 성품이나 모습 혹은 역할에 관하여 마고 노리스(Margot Norris)는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마리아는 그녀의 정 많은 성격 때문에 두드러진 것일까, 아니면 그녀는 난장이들이나, 재담가나 광대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을까?”(Norris, 137) 즉, 마리아가 어린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거나 세탁소에서 “평화의 사자”로 불리는 것은 곧 그녀를 둘러싼 환경이 그녀에게 어릿광대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랑을 위한 그녀의 꿈을 빼앗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타자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근대 시민 사회와 식민지적 환경 속에서 억압된 주체로 살아가는 마리아를 통해 작가는 그녀를 둘러싼 담론 속의 이어성을 파악해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마리아에게도 더블린의 마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세탁소의 벽에 걸려 있는 종교 팸플릿을 싫어한다(D, 100). 어린아이들로부터 “진짜 엄마”(D, 100)라고 불리는 그녀는, 마녀를 닮은 그녀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성모 마리아와 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종교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을 가린 채 운수를 예언하는 물건을 집어

내는 게임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그녀는 평화의 중재자로서 자신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일 절만을 반복해서 부르는 그녀의 노래도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지 못한 채 마비된 상태의 상징이라고 속단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그것은 마비된 더블린의 현실에 물들어 있지 않은, 혹은 피이크(Peake)의 말대로 “그러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Peake, 33)의 노래라고 볼 수 있다. 일견 그녀의 노래는 화려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진실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참된 결혼을 소망하는 감상적인 노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비참한 마비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만성절 전야에 마녀같은 외모로 마비의 본질과 같은 행동을 보여준 마리아의 노래 속에는 성모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더블린의 마비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서로에게 갖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이어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이어성은 형과의 불화가 극에 달해 있는 조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그가 느끼는 감동은 실제 구혼과 관련된 부분을 잊어버림으로써 결혼의 가능성을 상실하거나 혹은 포기하고 마는 마리아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슬픔이 아닌 “자기가 찾고 있었으나 찾지 못했던 것”(D, 106) 즉 잃어버린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가슴아픈 사건」(“A Painful Case”)의 주인공 제임스 더피(James Duffy)는 도시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더블린의 교외에서 살고 있다. “모험이 없는 삶”(D, 109)으로서의 그의 삶은 “진짜 모험은 밖으로 나가야만 가능하다”(D, 21)라고 외쳤던 「우연한 만남」의 소년들의 말을 입증해주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음악회에서 만나 알게 된 시니코 부인(Mrs Sinico)은 그녀의 풍부한 감수성으로 더피의 성격상의 불모성에 감성을 불어넣어준다. 그러나 “영혼의 치료할 수 없는 외로움”(D, 111)에 갇힌 채로 더피는 시니코 부인과의 관계를 끊는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슬픔과의 인연”(D, 112)이기 때문이다. 합리주의와 안전함과의 관계 이외의 모든 연결 고리를 끊은 더피는 ‘망명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기로 결심하고 그러한 정체성에 내재하는 모든 외로움의 속박에서의 탈출의 가능성을 거부하게 된다. 동시에 더피는 망명자로서의 그의 삶이 그가 그러한 망명의 방법을 통해 거부하고 있다고 믿는 요소들—아일랜드 국적, 자본주의, 종교, 계급 그리고 인간 등—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가 인간사회로부터 스스로 부과한 망명 행위의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거부했을 때, 더피는 그의 정체성의 아이러니를 수용한다. 사회가 추구하는 전체성이 그에게 제공하는 질서와 무모험성을 보존하기 위해 그는 시니코와 그녀가 제의하는 의미있는 인간관계라는 모험을 끝내 거부한다. 어느 날 밤, 더피의 말에 유난히 흥분한 시니코 부인이 “그의 손을 정열적으로 잡고 자신의 불에 대고 비볐을 때,”(D, 111) 그녀는 더피에게 “인연”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다. 이러한 욕망, 즉 정열이 더피의 합리주의, 즉 그의 정돈된 생각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는 그녀로부터 물러나서 두 사람 모두에게 “치료할 수 없는 외로움”(D, 111)을 선고하게 된다.

그들이 헤어지고 나서 4년이 지난 후, 시니코 부인은 술에 취해 열차에 뛰어 들어 자살하게 된다. 그녀의 죽음은 근대 사회의 전체주의에 타격을 입히고, 그녀를 죽게 하는 데 공모한 사회적 세력을 드러나게 한다. 욕망 없는 결혼이라는 덫을 여성에게 제공한 ‘질서’라는 인류학적 필요조건이 더피가 신봉하는 ‘질서와 합리주의’라는 남성적 필요조건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더피는 “그녀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타락시켰다”(D, 115)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헤어졌던 공원을 거닐면서 연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소외된 생활에 대한 자기 계시를 갖게 된다. 그는 스스로 억압받는 타자라는 피해의식에 살고 있었으나 결국 타자를 억압하여 시니코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통감하며 억압자로서의 자신을 깨닫는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자신의 정신적 마비로부터의 탈출의 기회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더피가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공원의 이름은 ‘불사조 공원’으로서, 이 이름은 재생을 의미하며 생명의 부활을 나타낸다(D, 328). 작가는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소외로 인하여 타인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고 진정한 사랑의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던 더피로 하여금 시니코 부인의 죽음을 통하여 환경으로부터 억압받던 자신의 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억압하는 타자’를 발견하게 함으로서 더블린의 마비가 극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유년기와 청년기의 인물들은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강조하여, 그것을 탈출의 꿈을 붙여넣는 데 사용하고 있다. 더블린의 공공생활을 다룬 세 편의 이야기들은 그러한 이탈의 주제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공공생활에 대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고통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분열을 강화시키는 식민지의 실재를 무의

식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한 이탈 행위를 피하고자 한다. 식민지 규칙이 그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성의 안정에 의존하고 그러한 안정이 경쟁적인 문화에 대한 억압에 의존하는 한, 이탈적 행위들은 억압받은 자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이어성의 근거가 되어 담론 속에 숨은 정치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담쟁이날의 위원실」(“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의 모든 인물들 중에서 두 명의 침묵하는 부재자들, 즉 파넬과 콜건(Colgan)이 가장 두드러진다(D, 121). 파넬의 기일인 10월 6일에 일련의 마비되고 소심한 사람들이 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당 리처드 티어니(Richard Tierney) 후보의 선거운동 후에 “위클로우(Wicklow)강의 위원회실”(D, 119)에서 만난다(Gifford, 88). 한 인물이 “그 회의실에서 논의되는 내용 중에 유일하게 동의되는 부분은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가 사기꾼이라는 것이다”(Leonard, 230)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인 마비가 편재되어 있다. 또 어떤 인물은 티어니를 “작은 돼지 눈을 한 소심한 뱀쟁이”(D, 123)라고 비난했다가 그가 보낸 맥주가 도착하자 “별로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며 “어찌 됐든 약속은 지키는 사람”(D, 128)이라고 말을 바꾼다. 이처럼 야비하고 소심한 운동원들이 아일랜드의 정치적 현실을 대표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치현실에 대한 대안은 죽은 파넬에게 있다.

하인즈(Hynes)의 시 “파넬의 죽음: 1891년 10월 6일”은 “정권을 잡지 못한 지도자(Uncrowned King)”인 파넬의 실각과 사망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근대사회의 위선자들, 겁쟁이 사냥개들, 그리고 아침을 일삼는 성직자들을 비난함으로써 과거의 희생제물로 바쳐진 아일랜드의 현재와 미래의 비극을 강조하고 있다(D, 134). 하인즈가 시를 낭송한 후 모든 청중들은 침묵 속에 “그들의 맥주”(D, 135)를 마신다. 돈과 맥주를 제공하는 한 티어니에게 충성을 바치게 될 이 운동원들은 파넬을 죽게 한 정치가와 종교인들의 소심함을 억압하기 위하여 그의 명령을 불러들인다. 그들의 “침묵”은 억압받았던 파넬의 복귀를 용이하게 했을 뿐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모든 식민지적 침묵을 해독하고 자신들을 타자의 탓에 몰아넣었던 과거의 편협성을 파악하게 한다.

파넬 외에도, 개신교의 귀족정치인으로서 아일랜드의 독립의 인정받지 못한 공신인 콜건이 “담쟁이 날의 위원회 실”의 침묵을 차지하고 있다. 이야기의 초반부에 잭 노인과 하인즈가 사무실에 노동자가 적합한가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콜건이 노동자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착하고 정직한 벽돌공과 술집 주인과의 차이가 뭐란 말입니까? —예? 노동자라 해서 다른 누구처럼 시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 손에 직함이나 들고 유권자 앞에서 티를 내고 언제나 뽐내는 자칭 신사 따위보다 더 자격이 있지 않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 매트? 하인즈 씨가 오코너 씨에게 이야기를 걸면서 말했다. (D, 121)

여기서 조이스는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대립구조 속에서 문화적으로 침묵당하고 있는 노동계급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미 죽어서 현실 속에서는 이미 부재하는 타자가 되어버린 파넬이 살아 있는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담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부재하는 콜건이 하인즈와 잭 노인으로 하여금 노동자의 전통적 침묵에 대하여 점점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이스의 담론은 억압받은 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서 정치, 경제, 계급 그리고 국가 등이 추구하는 전체성, 즉 잭 노인과 같은 아일랜드인들을 역설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전체성을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티어니의 운동원들은 에드워드 7세의 계획된 아일랜드 방문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 헨치(Henchy)는 “왕이 오는 것은 돈이 이 나라에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D, 131) 그 방문을 환영한다. 라이온즈는 “기꺼이 억압받는” 아일랜드인들이 그들의 영국인 군주를 환영하는 것에 대하여 명백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파넬에 대한 향수를 들먹이면서 라이온즈(Lyons)는 영국 왕의 성적인 도덕성을 핑계로 그의 방문에 반대를 표시하고 오히려 죽은 파넬을 “적합한 영도자”(D, 132)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에 대하여 헨치는, 아일랜드의 문제의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아일랜드인의 불공평함을 탓한다.

제임스 더피가 「가슴아픈 사건」에서 말 한대로, “앞으로 수세기 동안 그 어떠한 사회적 혁명도 더블린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D, 111)처럼 보인다. 그 이유는 아일랜드인들이 아직은 자신들의 억압된 상황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타자성을 채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이스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기존 질서로부터 이탈된 담론들은 바흐친이

말한 다성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이러한 다성성의 결과로 콜건과 파넬 같은 억압 받는 자들의 회귀를 통해 이루어질 더블린의 미래 비전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생겨나게 된다. 더블린 사람들이 이러한 더블린의 마비의 이어성에 대한 파악력이 생길 때에야 비로소 영국인들에 대한 그들의 적절한 대응이 형성될 것이다.

「어머니」(“A Mother”)의 등장인물인 키어니 부인(Mrs Kearney)은 스스로의 자아와 권력을 주장하면서 그 와중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삶을 꾸려가는 주체로서의 강력한 힘을 잃게 된다. 식민주의가 남성중심의 통치를 강조하고 여성의 타자로서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남성들은, 「위원실의 담쟁이 낱」의 등장인물들처럼 역설적으로 마비된 통치자들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Eire Abu* 협회의 무능한 간부인 홀로한(Holohan)은 키어니 부인의 딸이 연주하게 될 일련의 연주회를 기획하는데 연주자의 어머니인 키어니 부인에게 모든 것을 다 의존한다.

만사는 원만히 진행되었다. 키어니 부인은 캐틀린의 드레스 샵에 대려고 브라운 토머스 포목점에서 예쁜 분홍색 샤르튀즈 비단도 샀다. 돈이 많이 들었으나 이럴 때의 약간의 비용은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가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음악회의 2실링짜리 입장권을 열 두장을 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 리가 없는 친구들에게 보냈다. 잊고 빠뜨린 것이라곤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 덕분에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 (D, 138-139)

키어니 부인은 그들의 계약조건에 대한 남자들의 요구에 대답만 한다. 그녀는 그들의 허락이 없이는 끼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녀는 “여자다운 행동”(D, 141)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결국에 가서는 그녀는 딸이 무대에 서기 전에 홀로한에게 화난 목소리로 급료를 요구할 때 여자다운 처신이라는 사회적 묵계를 깨뜨리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 키어니 부인은 “여성”으로서의 문화적 지위에 대한 주장을 보류하게 된다(D, 149). 그녀의 분노와 호칭에 대한 표현은 아일랜드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실재 속에서의 정체성을 수용했던 타자로서의 여성에게 기대되었던 수동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아일랜드 남성들에게 식민지의 규칙을 수용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수동성은 남성들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권력의 시나리오 속에서 남성들은 타자의 위치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자의건 타의건 간에 이중의 타자가 된다. 이

처럼 키어니 부인과 같은 여성들에게는 아일랜드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그들은 수동적이고 순응적이며 남성에게 매여있는, 그리고 영국의 남성에게 대해서는 이중으로 매여 있는 여성일 뿐이다. 아니면 그들은 「죽은 자들」에서 가브리엘 콘로이가 노골적으로 설명하듯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게 된다(D, 190). 남성의 태도를 용납하지 못하고 여자다운 면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키어니 부인은 이제 여성을 권력으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식민지 전체성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상실당한 권력의 모습을 노출시킨다.

조이스는 여기에서 아일랜드의 여성으로 하여금 권력을 상실한 아일랜드의 남성이 항상 이중의 타자인 자신들에게 기대해왔던 침묵의 묵계를 위반하도록 허용한다. 「어머니」에서는 예술을 한갓 금전적인 가치로 타락시켜 버리고 만 더블린의 문화적 마비가 키어니 부인의 의식의 흐름과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여기서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그녀의 행위들이 식민지 내의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이중의 타자로 침묵 당해오던 여성에게 그 침묵을 깨뜨릴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타자에 대한 배려와 아울러 타자에 의해 전복되는 카니발적 양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정확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음악회에 대하여 딸의 출연을 거부하는 키어니 부인의 「반란」은 “체면”을 강조하며 그녀가 “점잖은 숙녀”(D, 148)로 남아 있어주기를 바라던 수동적 남성중심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전복의 시도로서 “사회라는 직물의 갈라진 틈”(Clark & Holquist, 301)으로서의 카니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생활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은총」은 술집의 계단에서 떨어져서 신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진 톰 커어난의 이야기이다. 커어난은 떨어지면서 그의 혀의 일부분을 깨물어 떨어져 나가게 했는데, 이것은 곧 타락자들과, 가톨릭 신자들과, 아일랜드인들과 그리고 권력을 빼앗긴 사람들을 주변화시키는 식민주의적 전체주의가 갖고 있는 침묵하게 하는 효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커어난의 체면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노력으로 파워 씨와 커닝햄 씨 그리고 맥코이 씨가 그를 설득하여 “상인들을 위한 가톨릭 영적 수양회”(D, 164)에 가도록 한다.

조이스는 「은총」에서 식민주체들이 전체주의가 제공하는 한 줄기의 회박한 환상이라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방식을 냉소적으로 표현한다. 수양회의 참가자들은 “20세기 초에 더블린의 중심적인 흥등가를 암시하는 이름을 가진 신부”(Gifford, 104)를 “세상 일에 밝은 사람”(D, 164)으로 존경한다. 실제로 퍼어든

신부는, 비록 신부로서 자신은 험령한 의복과 같은 이 세상의 장신구들을 착용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이 속세의 사람”이나 “영적인 회계사”(D, 174)라고 한다. 성경의 한 구절을 “사업가와 직업인들을 위한 텍스트”라고 말하면서, 그 신부는 영적인 문제를 물질적인 관심사의 하부구조로 간주한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회계 장부를 살펴보고 “만일 회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한다”(D, 174)고 주장한다. 퍼어든 신부가 사용하는 회계의 메타포는, 영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과 연결시킴으로써 금전과 직업 그리고 상업인들에 대한 교회의 의존성을 폭로하고 있다. 또한 고용과 자본에 의해서 그 의미가 확립되는 경제의 문제는 「위원회 실의 담쟁이 날」에서 헨치가 에드워드 7세의 방문을 지지할 때 기대했던 것처럼 영국의 왕관 혹은 식민세력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민지 치하 아일랜드 내의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긴밀한 유착관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경제와 신분을 제국주의 세력에 의존하는 것은 톰 커어난 같은 사람의 두 가지 주요한 속성인 ‘불만’과 ‘마비’를 생산해 낸다. 「은총」의 단순한 플롯 안에서 조이스는 영국과 아일랜드, 경제와 종교, 식민주체와 식민지 타자의 회생 등의 논리 사이의 미묘한 상호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III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마비라는 주제의 이어성을 분석해 보면, 조이스의 관심사가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된 삶을 그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비의 원인이 그들이 근대사회나 혹은 식민 주체인 영국 제국주의와 갖는 관계 속에, 그리고 자신들에게 내재된 ‘억압하는 타자’에 대한 무지에 기인하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작품을 마무리할 종장(Coda)으로서 「죽은 사람들」은 유년기에서부터 공공생활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주제, 즉 단성적 권위에 대한 다성적 이탈 욕구의 표출, 그리고 전체주의적 통일성의 양상에 대한 이어적 저항과 자각, 그리고 내 안의 타자, 즉 억압하는 타자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보편적 자아의 획득 등의 주제들을 재연한다.

가브리엘 콘로이(Gabriel Conroy)는 스스로 이탈을 경험하고 통일성과 일관

성을 추구하지만, 이야기의 말미에 가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희색 빛의 만질 수 없는 세상 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D, 223)을 느낀다. 스스로 고급문화로의 상승 지향성을 띠고 있는 그의 의식은 주변의 많은 카니발적 공격, 즉 바보 왕에게 왕관을 씌웠다가 벗겨 내고 조롱하는, 그리하여 위와 아래가 없는 한 마당을 이루어 내고자 하는 공격에 의해서 수없이 조롱당한다. 모오칸(Morkan) 자매의 “연례 무도회”(D, 175)는 조이스가 가브리엘로 하여금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하는 세기말을 맞는 더블린의 문화적 상황을 묘사하는 장이 된다. 가브리엘의 정체성은 교육받은 중산층으로서의 자신의 위치에서 오는 일종의 권위의식에 의해서 그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권위의식은 그가 모오칸 자매의 집을 방문하는 그 순간부터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공격을 받는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하녀인 릴리(Lily)는 가브리엘의 코트와 덧신을 받아들면서 하녀로서의 종속적인 의무를 이행한다. 그녀를 허물없이 대하는 가브리엘이 “언제 좋은 날에 네 젊은 애인하고 결혼을 하는 것을 봐야 할텐데?”라고 말하자 릴리는 “요즘 남자들은 다 아침꾼에다 그저 뭐 뜯어먹을 것이 없나 하는 연구만 하는 작자들인 걸요”(D, 178)라고 대꾸한다. 릴리의 말대꾸는 가브리엘의 정체성의 안정감을 침해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기”(D, 178) 때문이다. 그의 실수는 릴리가 가브리엘 자신의 문화적 권위를 존경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사실 그의 권위와 정체성은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릴리처럼 철저히 주변적인 사람, 즉 가톨릭 신자이며, 여자이며, 결혼하지 않았으며, 식민화 되어있으며, 하층 노동자인 사람조차도 그것들을 전복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층 노동자에 의한 공격의 모습은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어성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카니발은 이처럼 비공식 질서에 의한 공식 질서의 전복의 형태를 띤다.

자신에게 권위와 정체성을 제공해 준 근대 사회의 중산층의 분위기 속에서 그것들을 되찾으려하던 가브리엘은 다시 “자신과는 다른 문화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 내는 투박스러운 구두 소리”(D, 179)를 듣는다. 그 발자국들 중 하나의 주인인 아이보어스(Ivors) 양은 그 교육수준이나 사회적인 위치가 가브리엘과 비슷한 사람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축소된 문화적 권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그녀는 보수적, 반 민족주의 아일랜드 신문에 가브리엘이 기고한 논평에 대하여 그와 대립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자신의 민족주의를 당당하

게 표현한다(D, 187-88).

아이보어스 양이 가브리엘의 친영적 성격의 글에 대하여 비난을 하는 행위는 파티 도중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타자의 카니발적 공격이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의 권위적인 문화적 위치를 침해한다. “그녀에게 더 이상 으쓱대면서 말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D, 188) 가브리엘은 할 말을 잃고 당황한다.

일단 아이보어스 양이 파티장을 떠나자 그는 더 안전하게 자신이 적어놓은 연설문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릴리와 아이보어스 양 등과 같은 자의식이 강한 젊은 여자들과의 만남이 가져다주었던 예기치 않았던 당혹감을 극복하고 나서 가브리엘은 타자의 머리말에 “과감하게”(D, 197)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이러한 과감함은 위태해진 자신의 권위를 애써 회복하고자 하는 가브리엘 자신의 가련한 노력으로 보인다.

손님들을 위해서 거위 고기를 자른 후 그는 그의 권위에 대한 더 이상의 도전이 없어지자 그는 전통과 호의에 대한 자신의 연설을 실행한다. 그러나 그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아일랜드인들의 전통적 호의는 곧 자신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며, 그리하여 스스로를 “기꺼이 억압당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가브리엘은 아일랜드의 현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자신의 교육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자신의 권위와 그의 주체성을 가능하게 했던 영국의 식민주의에 대하여 상당한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식민주의의 전체성이 자신에게 얼마만큼 “타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지, 또한 그러한 그의 태도가 제국주의와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하는 자기 안의 ‘억압하는 타자로서’ 얼마나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식민지 체제의 기반 위에 설정된 가브리엘의 권위는 이제 이 이야기의 말미에서, 그가 “아내의 묘한 분위기를 주도하기”(D, 217)를 갈망할 때 최종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된다. 그의 남성성과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낭만적인 밤을 꿈꾸던 그는 대신에 아내 그레타(Gretta)를 위해 “용감한 죽음”(D, 222)을 택했던 마이클 퓨리(Michael Furey)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아내의 어린 시절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와 성적인 접촉에 대한 거부에 충격을 받은 가브리엘은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외침을 아내에게 토해내고 그의 몸으로 그녀의 몸을 짓밟아서 그녀를 정복”(D, 217)하고 싶어한다. 가브리엘은 “이 죽은 자들이 한때 서서 살았던 견고한 세계가 녹아서 점점 줄어드는 것”(D, 223)을 느끼게 된다. 그레타

의 폭로는 가브리엘이 얼마간의 특권을 누리왔던 근대사회의 안정감을 뒤흔든다. 또한 이러한 안정감의 깨멸은, 마치 그의 정체성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처럼, 식민주의의 전체성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세계를 용해시킨다.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한 사람의 친영파 아일랜드 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타자화 했던 가브리엘의 자아는 마이클 퓨리라는 죽은 자의 등장으로 인해 이제 스스로가 ‘타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조이스의 “조국의 도덕사”에 등장하는 다른 더블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브리엘은 힘이 될만한 말을 찾을 때마다 그저 “불완전하고 쓸모없는 말들”(D, 223)만 찾게 된다.

비록 “서쪽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다”(D, 223)고 느끼면서,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꿈꾸고 있을지라도, 가브리엘은 자신을 비롯한 더블린의 많은 ‘타자들’의 토대 위에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더니티와 식민주의의 전체성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타자를 억압해 왔던 내 안의 타자를 느끼며 “관용의 눈물”(D, 223)을 흘리며, 타자의 아픈 기억을 통해 “사랑”(D, 223)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의 변화는, 그가 처한 자기중심적 마비의 상황으로부터 탈출하여 “우주 전체에 사뿐히 내리는 눈”(D, 223)을 인식하는 보편적 자아로서 발전해 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IV

『더블린 사람들』은 작가의 말대로 성장의 네 단계에 맞추어 유년기와 청년기, 성인기, 그리고 대중생활에서 드러나는 마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각 작품의 주인공들은 각각 자신들에게 어울리는 문체를 통해서 스스로에게 부과된 마비 상태에 젖어들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바흐친의 이어성, 즉 한 언어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철학적 담론의 발생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의 틀을 통해 들여다봤을 때, 곳곳에서 드러나는 마비의 틈 사이로 그들은 ‘억압당하는 타자’로서의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억압하는 타자’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자의식적인 목소리를 드러내 줌으로써 총체적인 마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회복하게 된다.

특별히 그러한 자각은 「죽은 사람들」에 와서 그 절정을 이루어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경험이 우주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포괄적 자아로의 성숙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강한 자기중심주의에 싸여 있던 가브리엘 콘로이는 권위와 자존심에 대한 공격을 받고, 그 결과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온 세계를 하나로 덮어주는 눈을 바라보며 갖게되는 통찰력을 통하여 바흐친이 말한 카니발적 세계관⁴⁾을 형성하게 된다.

허버트 고어만(Herbert Gorman)은 조이스의 자의적인 망명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충분히 단순한 것이다. 첫째로 그는 자신을 변하지 않는 상태로 지켜가기를 원한다. 둘째로 그는 위대한 사색의 세계로 자신을 인도하고 싶어 했다. 셋째로 그는 어떠한 편협한 민족주의나 경건의 노예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편적인 예술의 법칙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러한 것을 성취하고자 했다. (Goreman, 83)

조이스는 조국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타락과 부패가 자신의 예술성을 키우는데 적당한 풍토가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예술지상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조국을 떠났다. 그는 일견 조국의 마비와 무기력에 혐오를 느낀 나머지 자의적인 망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모든 작품이 아일랜드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작품 속에 드러난 그의 조국에 대한 모든 저속한 표현이나 비난조의 어투들은 단순히 비난이나 원망의 차원이 아니라 조국에 대한 더욱 더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빠져 있을 때에는 자가당착적인 모순에서 헤어나지 못하

4) 바흐친은 프랑수아 라블레의 작품에 대한 그의 책 『라블레와 그 세계』에서 “카니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신 중심의 권위적인 중세의 세계관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르네상스 문학 작품 중 하나인 라블레의 소설은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과감한 사실적 묘사와 하강 지향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작품 구조는 공식적 질서에서 밀려난 비공식적질서가 위와 아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한 마당이 되는 총체성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세계에서는 정상적인 세계에서 천박하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고상한 고급문화를 한껏 비웃고 우위를 차지하게 되고, 위와 아래 혹은 너와 내가 없는 하나의 완전한 축제의 장이 이루어진다. 가브리엘이 경험하는 눈은 그것이 이루어내는 결과를 예상해 볼 때, 모든 것을 뒤덮어 하나로 만드는 카니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만 타자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타자화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해 왔던 ‘내 안의 타자’를 발견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은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마비적 상황에 빠진 『더블린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을 타자화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이루어 내고 더 나아가서 보편적인 인류의 자각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결국 조이스는 스스로에게 부과한 망명을 통해서 조국을 더욱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조국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우주적인 경험을 창출해 냄으로써 더블린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 것이다. 진정한 문학작품이란 사소한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소재가 다양한 서술자의 전략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개되면서, 결국에 가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형상화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은 작가의 치밀한 저작 의도와 끊임없는 실험정신 그리고 굽힘 없는 소신으로 말미암아 가장 “천박하고 세세한 표현”을 통하여 기억에 길이 남을만한 주제의식을 지닌 작품으로 표현되었고, 그 속에 스며있는 다의적 이어성은 본래 바흐친이 의도했던 패러디와 풍자를 통한 저항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차원 높은 보편성, 즉 ‘아’와 ‘타’의 대화적 공존을 통한 ‘미학적, 철학적’ 전체성을 형상화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대)

인용 문헌

- Attridge, Derek & Daniel Ferrer, eds., *Post-Structuralist Joy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Bakhtin, Mikhail. *The Dialogic Imagination*. Trans. & Ed. Caryl Emerson and Micael Holquist.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 _____. *Rabelais and His World*. Trans. Hellen Iswolsky, 2nd ed.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1984.
- Bowen, Zack and James F. Carens, ed. *A Companion to Joyce Studies*.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4.
- Cheng, Vincent.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Clark, Katerina and Michael Holquist. *Mikhail Bakhti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 Culleton, Claire A. *Names and Naming in Joy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4.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2.
- Gorman, Hebert. *James Joyce*. New York: Farrer and Rinehart, 1939.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London: Routledge, 1990.
- Herring, Phi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6.
- Joyce, James. *Dubliners: Text, Criticism, and Notes*, Walton Litz, ed., New York: The Viking Press, 1969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 1. Ed. Stuart Gilbert, New York: Viking Press, 1966.
- _____. *Letters of James Joyce*. Vols. 2 & 3. Ed. Richard Ellman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London: Faber & Faber, 1975.

Leonard, Garry.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3.

Norris, Margot. *Joyce's Web: The Social Unraveling of Modernism*.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92.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London: Edward Arnold, 1977.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Syracuse University Press, 1995.

Abstract

Heteroglossia in *Dubliners*: Other in Myself

Cheol-soo Kim

The Irish people in Joyce's *Dubliners* are suffering from the status of 'the double other', that is, they are captivated by the colonialism imposed by the empire and the totality of violence and paralysis permeating the city of Dublin. Without understanding the logic of "otherness" which controls their lives, the Irish people simply place their lives in the hands of the circulative structure of oppression and victimage.

However, the resistant spirit against the otherness of the Dubliners implied by Joyce in *Dubliners* succeeds in expressing then-current situation of Dublin's paralysis in the raw in the commonest language, enabling the reader to question the basic source of the paralysis. This intention of the author's can be manifested by reading Joyce's work in the light of Mikhail Bakhtin's principle of "heteroglossia." This kind of reading helps the reader interpret the realistic description of the phenomena as the starting point of post-colonial resistance against the source of the paralysis.

As a matter of fact, however, *Dubliners* reveals something more than the post-colonial pathos as such. For even though the first intention of Joyce as the author of this book was to help the Dubliners recognize their present status as 'the oppressed other,' by reflecting themselves in the mirror of other people's lives, Bakhtin's heteroglossia or hybrid construction leads them to discover in themselves another 'other that oppresses.'

Most of the heros in *Dubliners*, seemingly living in the center of paralysis without awareness of their own situation, are helped to recognize their paralyzed situation by the narrative technology of Joyce the writer. However, it is only when

they can find out 'the other in me' that is not oppressed but oppressing another 'other' in spite of themselves that the true possibility of escape from the paralysis can come true. The combination of Joyce's resistant narrative and Bakhtin's principle of heteroglossia as a tool of interpretation thus successfully helps the *Dubliners* and the reader as well anticipate a new philosophical and aesthetic discourse in James Joyce's *Dubliners*.

■ 주제어 : 조이스, 마비, 타자, 바흐친, 대화주의, 다성성, 이여성, 카니발